

## 眉巖 柳希春의 『新增類合』의 字學書로서 의의와 가치

—『類合』과 비교를 중심으로\*—

이연순\*\*

<차례>

1. 서론
2. 『類合』과 비교한 『新增類合』의 字學書로서 특징
  - 1) 학습 효과를 꾀한 體系 分類와 押韻 方式 活用
  - 2) 당대 朝鮮의 實情과 실생활을 반영한 漢字 선택
3. 『新增類合』의 字學書로서 의의와 가치
  - 1) 16세기 중반 당대 字學書로서 의의
  - 2) 현대 한문 교육의 활용 면에서 가치
4.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眉巖 柳希春의 『新增類合』을 대상으로 『類合』과 비교하여 그 특징을 밝힘으로써 『新增類合』이 16세기 중반의 字學書로서 갖는 당대적 의의와 함께 현대의 한문 교육적 가치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이에 본론에서는 『類合』과 달리 『新增類合』이 먼저 체계와 형식 면에서 上下 卷을 분리하고 項目을 제시하여 體系的인 分類 방식을 통해 학습자의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게 한 점, 그리고 1행에 4字씩 배열하고 押韻 方式을 活用하여 暗記 효과를 극대화한 점을 찾을 수 있었다.

다음 한자 선택 면에서는 당대 朝鮮의 실정을 반영해 佛教 관련 漢字와 쓰이지 않는 用語를 제거하고, 실생활에 쓰이는 漢字를 주되게 선택하여 학습 수준을 고

\* 본 연구는 2017년 11월 4일에 열린 한국고전연구학회 제100차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성신여자대학교, 강사

려해 재배치한 노력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이로써 본고는 『新增類合』을 『類合』과 비교하여, 16세기 중반 주자학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字學書로서 『新增類合』의 당대적 의의를 밝히며, 현대 한문 교육의 활용 가치를 제시할 수 있었다.

□ 眉巖, 柳希春, 『類合』, 『新增類合』, 字學書, 朝鮮, 16세기, 朱子學, 佛敎

## 1. 서론

본고는 眉巖 柳希春(1513-1577)이 저술한 『新增類合』을 대상으로 『類合』과 비교하여 그 특징을 밝힘으로써 『新增類合』이 16세기 중반의 字學書로서 갖는 당대적 의의와 함께 현대의 한문 교육적 가치를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新增類合』의 저자 眉巖 柳希春은 많은 저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존하는 책은 『續蒙求分註』, 『治縣須知』, 『國朝淵源錄』, 『新增類合』, 『語錄解』 등뿐이고, 죽기 10년 전부터 기록한 『眉巖日記』가 남아 현재 보물 260호로 지정되어 전하고 있다.

미암이 남긴 이러한 저술 가운데 『續蒙求分註』, 『新增類合』 등 특히 교육서가 주목되는바, 교육에 대해 남다른 시각을 가지고 기존에 있던 교육서를 새롭게 편찬해내려 한 미암의 시도가 돋보이기 때문이다. 당시 童蒙들의 교육을 위해 편찬된 蒙求書는 크게 字書와 倫理書로 나뉘어 있었다. 字書는 『千字文』을 비롯해 『訓蒙字會』, 『類合』 등이 있었고, 윤리서로는 『童蒙先習』이 대표적인 것이었다.<sup>1)</sup> 그리고 당시 윤리서에는 여

1) 김훈식, 「朝鮮前期 蒙求書의 편찬」, 『仁濟論叢』 17(1), 인제대학교, 2002, 13쪽.

성을 대상으로 한 책들도 나왔고, 미암은 여성 교육서를 따로 저술하지는 않았으나, 『續蒙求分註』에서 24명의 여성 인물 일화를 다루며 여성 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을 드러냈다.<sup>2)</sup>

이처럼 당시 몽구서 가운데 미암은 자서에 해당하는 『新增類合』과 윤리서에 해당하는 『續蒙求分註』를 각기 편찬하여 교육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續蒙求分註』는 唐나라 李瀚의 『蒙求』를 이으면서도 分註를 달아 새롭게 저술한 책이고, 字學書인 『新增類合』은 저자는 불분명하지만 『類合』에 대해 새롭게 증보하여 편찬한 것이다. 특히 『속몽구분주』는 미암이 유배지에서 17년간 공을 들여 저술하고 해배되자마자 간행을 서두른 책으로, 『蒙求』와 비교해 미암의 尊朱子 의식을 담은 學術書로도 다루어지는 등 다양한 시각에서 그 의의가 밝혀졌다.<sup>3)</sup> 그러나 『新增類合』에 대해서는, 『類合』을 새롭게 증보했다는 당대 字學書로서 『新增類合』을 주 대상으로 하여 『類合』과 비교, 분석하며 집중적으로 그 의의를 밝힌 연구는 아직까지 없다.

미암이 살았던 16세기 당시 字書로 대표적인 『千字文』은 중국의 양나라 때 周興嗣가 지은 이래로 우리나라에서도 오랫동안 학습되어 왔으나, 조선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15세기에 徐居正의 『類合』을, 16세기에는 崔世珍의 『訓蒙字會』를 편찬해 내게 되었다.

미암은 이러한 당시 字書로서 『千字文』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온 『類

2) 이연순, 『眉巖 柳希春의 『續蒙求』 연구』, 『어문연구』 147,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0, 447~450쪽. 柳希春, 『眉巖日記草』 제7책, 1573 계유년, 3.7.

3) 이연순(2010), 앞의 논문, 439~462쪽. 『續蒙求』는 중국의 역대 인물뿐 아니라 길재, 정몽주 등 조선의 인물까지 포함한 점에서 일찍이 주목되었다. 정호훈, 『續蒙求分註』, 『고서해제』 X,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평민사, 2008, 33쪽. 또 아동을 위한 교육 서로서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인물 중심의 類書로 분류되기도 하였다. 심경호, 『연세대 소장 유서 및 한자어휘집의 가치』, 『동방학지』 146,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9, 1~88쪽.

습』에 대해 또다시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새로이 증보하여 『新增類습』을 펴냈다. 『新增類습』을 만들면서 미암은 손자를 직접 교육하기 위해 오랫동안 보지 않던 『訓蒙字會』를 보고 잘못된 곳을 깨달아 그 장점을 취하였고<sup>4)</sup>, 요긴하고 쓰일 만한 글자는 남김없이 다루어 上卷에 1,000字, 下卷에 2,000字를 실어 총 3,000字로 마쳤다<sup>5)</sup>고 하였다.

미암이 『新增類습』을 편찬하기 시작한 것은 世子侍講院 說書로 재직 중이던 1542년(중종 37), 당시 동궁이던 인종을 보위하며 『類습』을 수정할 뜻을 가지고 1545년까지 3권으로 초고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그해 을사사화가 일어나고 2년 뒤 미암이 정미사화로 유배를 가면서, 『新增類습』작업은 19년간 중단되었다. 그러다 1567년 해배된 후 3년이 지나 1569년에 초고의 일부를 찾아 다시 착수, 완성하여 1574년에 해주에서 간행하였다.<sup>6)</sup>

미암은 이 두 책을 1576년(선조 9) 5월에 처음 조정에 진상하였다.<sup>7)</sup> 같은 해 7월, 미암이 조정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선조는 이 두 책을 보고 모두 精深하게 되었다고 칭찬하였다. 단, 글자 풀이에 지방 사투리를 쓴 점은 지적하였다. 미암은 자신이 본래 외방 고을에서 태어나 사투리는 어쩔 수 없다고 대신 답하였다. 이에 선조는 『新增類습』을 즉시 인출하라고 명하였다.<sup>8)</sup>

그러나 현대에 미암의 『新增類습』은 국내에 완본이 없어 일본의 白島 庫吉郎博士 所藏本이 방중현 선생에 의해 寫本과 함께 소개되어 이용되고 있다<sup>9)</sup>, 1970년경 序跋을 갖춘 完本이 나손 김동욱 박사 소장으로

4) 柳希春, 『眉巖日記草』 제10책, 1576 병자년, 3.29.

5) 柳希春, 『眉巖日記草』 제9책, 1574 갑술년, 2.2.

6) 안병희, 『국어사 자료 연구』, 문학과지성사, 1992, 415~425쪽.

7) 柳希春, 『眉巖日記草』 제10책, 1576 병자년, 5.9. 『新增類습』은 이후 수정을 계속하여 1576(선조 9)년 5월, 7월, 10월까지 세 차례의 수정 기록이 보인다.

8) 柳希春, 『眉巖日記草』 제10책, 1576 병자년, 7.22.

되면서 영인되어 학계에 알려졌다.<sup>10)</sup> 따라서 『新增類合』에 대한 연구도 197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기존 연구사에서 『新增類合』에 대한 관심을 가장 먼저, 활발히 보인 분야는 국어학 분야이고<sup>11)</sup> 다음은 문헌·서지학 분야로, 『新增類合』의 판본 고찰을 통해 그 특징과 여러 판본 간 차이를 드러낸 성과가 있었다.<sup>12)</sup> 이 외에 『新增類合』이 특정 어휘를 고찰하기 위한 문헌자료의 하나로서 이용된 경우도 있었다.<sup>13)</sup> 또한 『新增類合』보다 일찍부터 연구가 이루어진 『類合』과 『訓蒙字會』의 연구 속에서 『新增類合』을 부분적으로 비교하여 다루며 그 특징을 드러내기도 하였다.<sup>14)</sup> 그러나 『新增類合』을 주 대상으로 하여 『類合』과 비교했을 때 가지는 특징과 의의를 밝히

- 
- 9) 방중현·남광우, 『(方鍾鉉 先生 所藏) 萬曆 新增類合(寫本)』, 『국어국문학』 21, 국어국문학회, 1959, 177~219쪽.
- 10) 柳希春, 『新增類合』, 단국대학교 동양학총서 2집, 안병희 해제, 1972, 215~216쪽.
- 11) 申景澈, 『新增類合의 字釋 研究-羅孫本과 高大本을 中心으로』, 『韓國言語文學』 16, 한국언어학회, 1978, 137~158쪽. 閔忠煥, 『『訓蒙字會』 『新增類合』 『千字文』의 比較 考察』, 仁荷大學校 석사학위논문, 1981. 위진, 『新增類合의 새김 고찰』,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오완규, 『千字文·訓蒙字會·新增類合 字釋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이은실, 『新增類合의 漢字音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河野六郎 著, 李珍旻 譯註, 『한국 한자음의 연구』, 역락, 2010.
- 12) 이석구, 『類合에 대한 國語學的 研究』,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배현숙, 『新增類合 판본고』, 『민족문화연구』 3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3, 283~330쪽. 장요한, 『계명대 소장본 『新增類合』의 문헌학적 의의』, 『대동한문학』 45, 대동한문학회, 2015, 175~198쪽.
- 13) 신종진, 『『研經齋全集』에 실린 稻 穀物名에 대한 어휘사적 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52, 한양대학교출판부, 2012, 83~118쪽. 신종진, 『곡물명 수록 어휘 자료집의 계보와 그 어휘 목록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54, 한양대학교출판부, 2013, 67~95쪽. 김은정·강순제, 『조선시대 아동용 字學書를 통해 본 복식명칭 연구』, 『服飾』 제54권 제4호 통권85호, 한국복식학회, 2004, 97~111쪽.
- 14) 박형의, 『類合』의 표제자 선정과 배열』, 『이중언어학』 23, 이중언어학회, 2003, 91~112쪽. 나도원, 『16세기와 21세기 공용한자의 인지언어학적 의미범주 고찰: 『訓蒙字會』와 3500한자를 중심으로』, 『中國學』 53, 대한중국학회, 2015, 207~222쪽.

고, 字學書로서 『新增類合』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본격적인 연구는 없었다.

『新增類合』이 『類合』과 다른 점에 대해서는, 『新增類合』의 序文에서 미암이 편찬 동기를 밝힌 대목, 곧 “『類合』이 규모가 넓지 않고 요긴한 글자가 빠져 있어, 과문함을 헤아리지 않고 수정해 보충하였다.[第規模不廣, 至大至緊之字, 遺漏尙多. (臣)不揆諛聞, 修補增益.]”라든가, 進冊文에서 “『類合』에 僧尼를 尊崇하고 儒聖을 排斥하는 내용이 있어서 修正할 뜻을 두었다.[類合其中, 尊僧尼而黜儒聖, 卽有修正之志.]”<sup>15)</sup>라고 한 언급이 종종 인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실제 『新增類合』이 『類合』의 어떠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어떠한 차이점을 갖는지, 곧 『類合』과 『新增類合』이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新增類合』이 『類合』과 차별화되어 갖는 특징과 의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우선 『新增類合』과 『類合』을 비교하여 『新增類合』에서 증보된 점이 무엇인지, 곧 『類合』에만 있고 『新增類合』에서 삭제된 한자는 무엇이며, 교체된 한자나 새롭게 들어간 한자는 무엇이어서, 결국 『新增類合』이 『類合』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 기존에 언급된 사항들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그 외에도 기존에 언급되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서도 특징이 있다면 밝혀져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類合』뿐 아니라 전통적인 중국 字學書들에게서 영향 받아 취한 점들에 대해 비교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랬을 때 16세기 중반 당대 字學書로서 『新增類合』만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대 한문 교육

15) 進冊文의 위치는 판본에 따라 다른데 대표적으로 고려대 소장본은 上卷 끝에 있고, 나손본은 下卷 끝에 있다. 본고는 나손본을 대상으로 하여 하권 끝에 있는 것을 제시하였다.

에서 활용되고 있는 실재를 파악하여 한문 교육과 관련해 적극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고구하며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대상 자료로는, 선행하여 이루어진 『類合』과 『新增類合』의 판본 연구를 참고로 하여, 한 가지 판본을 선정해 다루고자 한다. 먼저 『類合』의 판본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sup>16)</sup>와 이 외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목판본 2종과 석판본 1종 등 3종이 소장되어 있어, 본고에서는 『類合』의 판본으로 접근 가능성이 높고 가독성이 뛰어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가운데 석판본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新增類合』의 판본에 대해서는 단국대학교 부설 동양학연구소에서 1972년에 영인한 나손본을 기본 대상으로 하고 배현숙의 연구를 참고하였다.<sup>17)</sup> 그리고 최근 경성대학교 한국한자연구소에서 ‘한국 역대 자전 연구 총서’를 상해 인민출판사에서 7종 6책으로 간행하였고, 여기에 『新增類合』이 『千字文』, 『訓蒙字會』와 함께 ‘蒙求字書’로 다루어져 『《新增類合》整理與研究』로 따로 정리되어 있기에 이 또한 참고하였다.<sup>18)</sup>

## 2. 『類合』과 비교한 『新增類合』의 字學書로서 특징

『類合』과 『新增類合』이 크게 비교되는 점을 간략히 들면 다음과 같다. 『類合』에는 전체 1,512자가 의미에 따라 1행에 6字씩 배열되어 있는 데

16) 이석구(1988), 앞의 논문, 1~185쪽. 박형익(2003), 앞의 논문, 91~112쪽.

17) 배현숙(2003), 앞의 논문, 283~330쪽.

18)李建廷, 『蒙求字書整理與研究』, 『《新增類合》整理與研究』, 上海人民出版社, 2012. (경성대학교 한국한자연구소, ‘한국 역대 자전 연구 총서’: 王平, 河永三 主編, 『域外漢字傳播書系: 韓國卷』, [3] 『蒙求字書整理與研究』(『新增類合整理與研究』, 『千字文整理與研究』, 『訓蒙字會整理與研究』合本), 上海人民出版社, 2012.)

반해, 『新增類合』에서는 上下卷을 분리하여 上卷에서 1,000字, 下卷에서 2,000字의 총 3,000字를, 각 권에서 분류한 항목에 따라 1行에 4字씩 나열해놓았다는 차이가 발견된다. 곧 『新增類合』은 上卷과 下卷을 나누고 각권에서 분류 항목을 체계화하여, 上卷에서는 주로 사물의 이름을 가리키는 24개의 항목에 1,000字를, 下卷에서는 주로 추상적인 의미를 담은 3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2,000字를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이로써 『新增類合』은 『類合』보다 배나 많은 총 3,000字가 된다. 이러한 『新增類合』의 한자어에는 『類合』에서 보이지 않는, 미암 당시 실생활에서 보이고 쓰이는 한자어들을 수록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한자어들을 배열할 때 8字(간혹 4字)마다 押韻을 한 점도 『類合』에서는 보이지 않는 점이다.

이에 『類合』과 『新增類合』의 비교 대상이 되는 이러한 분류 체계와 한자 선택 면, 나아가 압운 방식을 활용한 점 등에 대해 차이가 나타나는 점을 살펴며 『類合』과 비교되는 『新增類合』의 특징을 찾아보고자 한다.

## 1) 학습 효과를 꾀한 體系 分類와 押韻 方式 活用

### (1) 上下卷 분리와 項目 제시로 학습 단계 체계화

『類合』과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진 『新增類合』上卷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一三四부터 數目이라는 항목을 오른쪽 상단에 제시한 후 天覆地載로부터 天文, 靑黃赤白에서부터 衆色, 山川溪澗부터 地理, 芝蘭萱菊부터 草卉, 松柏椿桂부터 樹木, 梅梨榴栗부터 果實, 稻黍稷粟부터 禾穀, 薑芋蔥薤부터 菜蔬, 鳳凰鸞鵠부터 禽鳥, 麒麟熊羆부터 獸畜, 龍龜魚蟹부터 鱗介, 於諸庶倫부터 人倫, 宮殿闕宇부터 都邑, 父母兄弟부터 眷屬, 頭頂首額부터 身體, 廳房樓閣부터 室屋, 茵簟席褥부터 鍾陳, 金銀銅錫부터 金帛, 苧麻布綿부터 資用, 鉢觴杯椀부터 器械, 飯粥酒漿



부터 食饌, 冠冕袞衫부터 衣服으로 항목을 구분하여 1행에 4字씩 배열하였다.

이처럼 항목을 분류하여 한자를 배치하는 전통은 중국에서 일찍부터 있어 대표적으로 『爾雅』, 『急就篇』, 『皇覽』, 『藝文類聚』 등에서 보인다.<sup>19)</sup> 그러나 『新增類合』에서는 上下卷을 분리해 上卷에는 실생활과 관련된 사물의 이름을, 下卷에서는 추상적인 개념을 담은 행위와 동작을 배열하여 체계화한 점에서 특징이 발견된다. 곧 『新增類合』은 일찍이 중국에서 항목 구분을 시도했던 『爾雅』 등의 전통을 이으면서도 上下卷 분리를 통해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해 학습 단계를 체계화한 것이다.

실제로 『新增類合』에서는 같은 뜻의 한자라도 상하권에서 학습 수준을 달리해 제시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늘과 땅’을 가리키는 한자의 예를 들어보자. 上卷의 두 번째 항목인 ‘天文’ 항목에는 ‘天覆地載’라 하여 ‘하늘과 땅’을 가리키는 한자로 ‘天’과 ‘地’를 들고,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문장 형식으로 배열해, 익숙하고 쉬운 한자와 문장 구조를 선택해 제시했다면, 下卷의 ‘心術動止’ 항목에서는 ‘逖覩穹壤’이라 하여 하늘과 땅을 가리키는 한자로 ‘穹’과 ‘壤’을 들고, 서술어와 목적어의 형태를 갖춘 문장으로 배열해, 상권에서보다는 어렵고 복잡한 한자와 그 구조를 익히게 하였다.

또 다른 예로 上卷의 ‘人倫’ 항목에서는 ‘公卿士民’이라 하여 신분을 나타내는 한자들을 나열하였는데, 이 가운데 ‘民’에 해당하는 한자가 下卷의 ‘心術動止’ 항목에서 ‘育迪黔蒼’ 속에 좀 더 어렵게 다시 나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곧 ‘黔蒼’이 그것인데, ‘黔蒼’은 ‘黔首’와 ‘蒼生’을 줄여 만든 말로 백성을 뜻하며, 같은 뜻이지만 상권에서 나온 ‘民’보다 어려운 한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하권에서 다시 제시된 것이다.

19) 박형익(2003), 앞의 논문, 105쪽.

그리고 下卷의 ‘心術動止’ 항목에서는 앞에 나열한 한자어가 뒤에 다시 세분화되어 나타나는 예를 볼 수 있는데, 감정을 나타내는 한자어들에서 그 예가 풍부하다. 곧 下卷 ‘心術動止’의 앞에서는 ‘愛憎恩怨, 喜怒憂樂.’로 인간의 감정에 해당하는 한자들을 여덟 가지로 제시하였는데, 이 중 ‘憂’와 비슷한 뜻을 가진 한자어가 뒤에 ‘悵’, ‘悼’, ‘愁’, ‘憾’과 같이 이어져 다양한 한자어 표현으로 나오고, ‘怒’와 비슷한 뜻을 가진 한자어도 뒤에 ‘忿’, ‘恨’, ‘憤’, ‘恚’와 같이 붙어서 다양하게 제시된 것이 그것이다.

이처럼 『新增類合』은 같은 뜻을 가진 한자라도 상권과 하권에서 수준을 달리해 제시함으로써, 학습을 단계적으로 심화할 수 있도록 꾀한 점에서 『類合』과 다른 특징이 발견된다.

## (2) 1行 4字 배열과 押韻 방식 활용으로 暗記 효과 극대화

『新增類合』은 漢字들을 항목에 따라 분류한 후 1행에 4字씩 배열하여 『千字文』과 같은 배열 방식을 취하였는데, 이는 『類合』이 의미에 따라 한자들을 분류해 6字씩 배열함으로써 학습자에게 한자의 형태, 음, 뜻을 암기하는 데에 부담을 줄 수 있는<sup>20)</sup> 요인을 해결한 것이다. 그리고 『新增類合』은 항목에 따라 한자들을 분류하여 제시한 끝에 설명 문장을 달아 이를 마무리하였는데, 이는 『急就篇』이나 『千字文』에서도 보이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上卷에 들어있는 ‘獸畜’ 항목의 마무리 부분을 예로 들면, 먼저 “麒麟熊羆, 虎豹獼犀. 猿猴鹿麋, 弧兔豺狼. 牛馬橐駝, 駒犢驢騾. 羔羊猪羖, 犬狗猫鼠.”과 같이 ‘獸畜’ 항목에 해당하는 짐승들 이름을 1행에 4字씩 배열하되, ‘麒麟’과 같은 상상의 동물에서부터 일상에서 흔히 보는 개, 고양이, 쥐[犬狗猫鼠]들까지 나름의 순서를 갖추어 배열한

20) 박형익(2003), 앞의 논문, 105~106쪽.

후, 마지막 구에서 서술형 문장으로 앞에서 나열한 사물들에 대해 정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그 짐승들의 굽과 밧뚝, 뿔과 꼬리 등의 유무로 사는 곳이 다름을 구분 짓고[蹄爪角尾, 受生區異.], 사물들의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들, 곧 “울고 짓고, 달리고 달아나는 것 또한 털이 있다고 한다.[鳴吠馳奔, 亦曰毛群.]”라며 그 특징을 단적으로 드러내었다.

그리고 『新增類合』에는 『類合』과 달리 押韻이 되어 있다는 중요한 차이가 발견된다. 『類合』이 6字씩 배열되어 있고 운자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한자가 나열된 것에 비해, 『新增類合』은 4字씩 배열하며 마지막 字의 韻을 맞추려고 시도함으로써, 韻字를 많이 의식한 흔적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千字文』에서도 8字마다 押韻하여 학습자들이 암송하기 쉽도록 한 학습 효과를 『新增類合』에서도 적용한 것이라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押韻 방식은 미암의 또 다른 蒙求書인 『續蒙求分註』에서도 나타나는바<sup>21)</sup>, 동몽을 위한 학습에 押韻이 도움이 되는 점을 충분히 활용하고자 한 의도라 파악된다.

『新增類合』이 압운한 예로, 그 전 항목까지 『類合』의 순서를 따라 한자들을 나열하다가, 上卷의 일곱 번째 항목인 ‘果實’ 항목에서부터 한자들의 순서를 바꾸어 놓은 데서 볼 수 있다. 곧 栗(울)과 橘(귤), 柿(시)와 榲(비), 酸(산)과 般(반)이 對가 되게끔 운자를 배열한 것으로, 이는 운자를 의식하여 의도적으로 배치를 바꾼 것이라 판단된다.

다만 항목 구분 없이 한자를 배열한 『千字文』에 비하면 『新增類合』의 운자 체계는 많이 떨어지는데, 그것은 『新增類合』이 항목 분류에 충실하다 보니 항목이 바뀔 때마다 換韻하였고, 항목별로 해당하는 한자 수에 따라 압운 방식이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上卷의 ‘禽鳥’ 항목은 “鳳凰鸞鵠, 鷗鷺鶴鶴. 鴻雁鵞鶩, 鳩鴛烏鵠. 鸚鵡鴛鴦, 鵝鴨鵙鵙.

21) 심경호(2011), 앞의 논문, 415~464쪽.

鷹鵠鷓鴣, 鷄雉燕雀. 鵠蝠鴟梟, 鴛鴦鸚鵡. 巢栖雛卵, 雄雌孕產. 翼飛  
 翬啄, 肆稱羽族.”과 같이 4자씩 배열되어 있는데, 이 중 1행부터 8행까지  
 는 8자마다 한 번씩 押韻하여, 곧 鶴, 鵠, 鴛, 雀은韻을 지켰으나, 다음  
 9행부터는 2행씩마다 換韻하여 梟와 鸚, 卵과 產, 啄과 族끼리만 압운한  
 것이 그것이다.

이상 『新增類合』이 『爾雅』와 같이 한자들을 항목에 따라 분류하여 제  
 시하되 上下卷으로도 분리해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한자와 그 구조를 심  
 화해가며 익힐 수 있는 단계별 학습법을 이루었고, 학습자의 입장에서 암  
 기에 용이하도록 『類合』의 6字 배열보다 『千字文』의 4字 배열 방식을  
 택하였으며, 항목을 구분한 마지막에는 그 분류한 항목들을 정리하여 설  
 명하는 문장 형식으로 맺는 『急就篇』과 『千字文』의 방식을 취한 점 등  
 에서, 미암이 전통적인 중국 字學書들의 장점을 살리면서 또한 새롭게 개  
 발한 방식을 넣기도 하여, 童蒙의 한자 학습에 최대한 효과를 꾀한 면모  
 를 발견할 수 있다.

## 2) 당대 朝鮮의 實情과 실생활을 반영한 漢字 선택

### (1) 佛敎 관련 漢字와 쓰이지 않는 用語의 제거

『新增類合』에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우선 佛敎 관련 漢字를 제거하  
 고자 한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類合』에서는 ‘僧尼巫醫’였  
 던 것이 『新增類合』의 ‘人倫’ 항목에서 ‘儒胥巫醫’로 바뀐 것을 볼 수 있  
 다. 이것이 미암이 進冊文에서 밝힌 점, 곧 “『類合』에 僧尼를 尊崇하고  
 儒聖을 排斥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비판하고 그것을 고친 대표적인 예  
 이다. 이 항목의 앞뒤 전체를 들어 보면, “於諸庶倫, 主張唯人. 國家君  
 臣, 公卿士民. 男女老幼, 兒童翁叟. 賓客使宦, 朋友師傅. 儒胥巫醫, 等

別尊卑.”와 같이 사람 사이의 관계와 위치, 신분 등을 가리키는 한자들이 배열되어 있는데, 이때 ‘僧尼’ 대신 ‘儒胥’로 바꾼 데서 미암의 그러한 문 제의식의 발현을 볼 수 있다. 이는 당시 유교 사회를 지향한 조선 시대에서 이전 시대와 달라진 신분 질서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 『新增類合』의 그 다음 항목인 ‘都邑’에 ‘僧寺’가 있는데 이는 『類合』에 ‘佛寺’라고 한 것을 고쳐, 이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것이다.

下卷의 ‘心術動止’ 항목에서는 이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불교를 배척하는 문장이 나온다. ‘攘刮仙佛’이 그것이다. 여기서 ‘仙佛’이라 하여 불교뿐만 아니라 도교도 함께 배척하고 있는데, 이는 유교를 국교로 표방한 나라에서 둘 다 ‘攘刮’, 곧 물리쳐야 할 대상이 됨을 밝힌 것이다.

이뿐 아니라 『新增類合』에서는 당시 쓰이지 않던 용어를 제거한 예도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類合』에 들어 있던 ‘賽’ 字를 들 수 있다. 이 글자는 앞의 ‘報’ 字와 합하여 ‘報賽’가 되어 “해마다 가을에 農事를 끝마친 뒤, 神의 恩德에 報答하기 위하여 지내던 祭祀”를 뜻하는 용어로 제시하였으나, 이는 『新增類合』에서 그대로 쓰이지 않고 ‘償報’로 바뀌었다. 그 이유는 ‘報賽祭’라는 것이 中宗 때까지 釋奠祭, 社稷祭, 厲祭 등과 함께 국가 행사로서 중요하게 여겨졌으나<sup>22)</sup>, 中宗 이후로는 국가 행사로서 행해진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미암이 유배에서 돌아와 『新增類合』을 완성한 선조 때에는 이미 사라진 제사이자 용어가 되었기 때문이라 파악된다.<sup>23)</sup> 그래서 『類合』의 ‘報賽’를 『新增類合』에서는

22) 『世宗實錄』 86권, 世宗 21년 8월 17일 癸巳 2번째 기사. 『中宗實錄』 36권, 中宗 14년 6월 13일 乙亥 2번째 기사. 이것이 실록에서 이 제사에 대해 기록된 마지막 기사이다.

23) 다만 17세기 인물인 임성주의 문집에 수록된 편지 글에서 그 용어가 다시 등장하고 있어 주목되나, 이때에도 국가 행사 기록은 찾아볼 수 없고, 학자들 간에 그 본래의 미만을 논하고 있었던 사정을 짐작케 한다. 任聖周, 『鹿門集』, 권4, <答金君保(哲

제거하고, 그 의미는 살리되 운자를 고려하여 한자와 한자 위치를 바꾼 ‘償報’로 제시하였다.<sup>24)</sup> 그리고 『類合』에 들어 있던 ‘賽’字는 『新增類合』 下卷 ‘事物’ 항목에서 ‘賒’(세넬 사)字 뒤에 제시해, 앞의字와 관계를 고려해, 곧 반대되는 뜻을 가지도록 ‘賽’字의 위치를 재배치하였다. 이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의도적 배치라 파악된다.

또한 『類合』에 들어 있던 ‘神祠’는 『新增類合』上卷 ‘都邑’ 항목에서 ‘祠’字가 떨어지고 ‘神堂’으로 바뀌었는데, ‘神祠’가 고려시대에 산신에게 제사지내던 사당을 가리킨 한자어<sup>25)</sup>였기 때문에 『新增類合』에서 제거된 것으로 보인다.

## (2) 실생활에 쓰이는 漢字의 선택과 재배치

전체적으로 한자 선택 면에서 『新增類合』上卷의 앞부분이 『類合』과 거의 비슷하게 이어지다가, 다섯 번째 항목인 ‘草卉’ 항목에서부터 부분적으로 漢字가 바뀌고, 일곱 번째 항목인 ‘果實’ 항목부터는 순서가 바뀌면서, 『類合』에 있던 한자가 『新增類合』上卷에서 빠지거나 다른 한자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類合』의 한자와 음과 뜻이 같으나 『新增類合』上卷에서 同字로 모두 바뀐 대표적인 예로 숫자를 들 수 있다. 『類合』과 『新增類合』의 맨 처음은 모두 숫자로 시작하는데, 이는 한자를 모르는 아동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주어야 할 내용으로 채택된 것이라 보인다. 그런데 『類合』에서는 숫자로 壹, 貳, 參 등과 같이, 一, 二, 三 등과는 同字이나 좀 더 복

行○甲子正月)〉.

24) ‘償報’가 포함된 구와 그 앞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思想戀慕, 惠賜償報. 疾病痊愈, 忍耐辛苦.” 여기서 ‘報’가 下平聲 ‘豪’字韻을 맞추기 위해 ‘償’과 자리를 바꾼 것을 알 수 있다.

25) 『高麗史節要』 권제3 현종 2.2. 『高麗史』 권제11, 19장 뒤쪽, 世家 11 숙종 4.6.

잡한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문서 작성을 위해 성인이 되면 일상에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많이 쓰게 되는 숫자이기에, 물론 언젠가는 배워야 하겠지만, 막상 아동 시기에 배우고 쓰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新增類合』에서 아동들이 배워서 바로 쓸 수 있는 한자인 一, 二, 三 등으로 모두 고쳐 제시한 것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壹, 貳 등은 『新增類合』의 下卷 ‘心術動止’ 항목에서 비록 나란히 나열되지는 않으나 ‘壹統’, ‘貳譜’ 등과 같이 다른 한자어들과 관계를 표시하며 제시해놓았다. 이는 이 책의 학습 대상자인 아동의 실생활에 더 긴요한 한자들을 선택, 배치한 것으로,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미암의 교육자로서 안목이 반영된 것이라 보인다.

또 『類合』의 한자와 뜻은 같은데 음과 한자가 다른 한자가 들어간 경우가 발견된다. 대표적인 예로 『類合』에서는 물고기에 해당하는 한자들을 나열한 후 ‘厭逃鉤網’이라고 정리한 문장이 『新增類合』의 ‘鱗介’ 항목 중 물고기에 해당하는 한자들의 끝에서 ‘怕逃鉤網’라고 되어 있어, 『類合』의 ‘厭’ 자가 『新增類合』에서 ‘怕’ 자로, 곧 비슷한 뜻을 지닌 다른 한자로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類合』에 있던 ‘厭’ 자는 『新增類合』의 下卷 ‘心術動止’ 항목으로 옮겨져 있다. 또 다른 예로 『類合』에서 곡물들의 명칭을 나열한 후 ‘苗抽稅熟’이라고 정리한 문장이 나오는데, 이것이 『新增類合』 ‘禾穀’ 항목에서는 ‘苗抽穗熟’로 되어, 곧 『類合』의 ‘稅’ 자가 『新增類合』에서 ‘穗’ 자로 바뀐 것을 들 수 있다. 그 뒤에는 ‘謂之禾穀’이라 하여 이것이 ‘禾穀’의 특징임을 알려준다. 이때 『類合』에 있던 ‘稅’ 자는 『新增類合』의 ‘都邑’ 항목에서 ‘貢’ 자와 함께 나온다.<sup>26)</sup> 이러한 예는 한자들을 항목에 따라 분류, 나열하다가 이를 정리하는 문장에서 『類合』에 쓰인 한자보다 더 적합한 한자를 선택하고, 𣵵 한자는 그대로 버리지

26) 이 한자들이 나오는 앞뒤를 보면, 『新增類合』 ‘都邑’ 항목에서 ‘舟船帆楫, 貢稅叢集.’라 하여 ‘稅’ 자가 문맥에 맞게 선택,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않고 더 적당한 위치에 재배치함으로써 학습자의 이해를 도모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新增類合』의 ‘鱗介’ 중 벌레에 해당하는 한자들에는 『類合』에 없는 한자가 많이 들어 있는데, 이들은 순서대로 蝴, 蝸蚪, 蝦蟆, 蜈蚣, 蜘蛛, 蛭, 蛆, 蟻 등으로, 나비, 올챙이, 청개구리, 거미, 거머리, 구더기, 서캐 등 주변에서 쉽게 보고 접할 수 있는 벌레들의 이름을 가리키는 한자들을 새로 넣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는 낱글자가 아닌 두 글자가 하나의 단어를 형성하여 외우기 쉽도록 한자어를 더 붙인 경우도 있다. 이는 곧 『類合』에는 蝶, 蠖, 蛛, 蝨 등 하나의 한자만을 제시하고 뜻을 풀이하였지만, 『新增類合』에서는 이들 한자어에 대해 蝴蝶, 蜈蚣, 蜘蛛, 蟻蝨 등으로 같은 뜻이지만 다른 한자를 더 붙여 성어를 이루어 암기하기 쉽게 한 것이라 해석된다.

『類合』의 표제자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類合』이 『千字文』 표제자의 57.1%가 일치함으로써 한자의 반복 학습 효과를 얻었으리라고 그 특징을 밝힌 바 있다.<sup>27)</sup> 그러나 『新增類合』은 『千字文』의 표제자와 반 이상 일치하는 『類合』에는 없지만, 당시 조선의 실생활에서 쓰이고, 흔히 볼 수 있는 사물을 가리키는 한자를 새로 넣음으로써, 조선의 실정을 반영하고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상 한자 선택 면에서 『新增類合』上卷에서는 『類合』에는 없지만, 우리나라에 실제 있는 사물을 뜻하는 한자를 새로 넣기도 하고 『類合』에는 있지만 뜻이 중복되는 한자는 과감히 빼버리며 최소한만 남겼다. 이처럼 분류 체계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한자 선택을 통해서도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단계별 학습이 가능하게 한 점에서 『類合』과 다른 『新增類合』만의 특징이 발견된다.

27) 박형익(2003), 앞의 논문, 2003, 109쪽.



### 3. 『新增類合』의 字學書로서 의의와 가치

#### 1) 16세기 중반 당대 字學書로서 의의

『新增類合』은 항목 구분 방식을 취하되 上下卷 분리로 이전에는 없던 독창적인 방법을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字學書가 가진 장점을 적용하면서, 『類合』이 1행에 6字씩 압운도 하지 않고 배열하여 학습자가 이해하고 암기하는 데 어려울 수 있는 단점을 해결한 字學書이다.

그런데 최근 『訓蒙字會』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에서, 『訓蒙字會』의 어휘 분류의 특징으로 物名 위주인 점을 들고, 그 예로 ‘人類’ 항목에 포함된 한자들이 현재는 동사에 해당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이를 『訓蒙字會』에서는 그 행위로 이루어지는 직업 혹은 신분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어, 『新增類合』에서 이러한 한자들이 動止류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다르다는 점을 밝혔다. 이처럼 한자의 의미를 動詞 위주로 보지 않고 名詞 위주로 해석하는 物名 중심의 이해는 荀子 『正明篇』의 명제에 나타난 정신과 부합하는 점에서, 최세진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 해석하였다.<sup>28)</sup>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新增類合』은 上卷과 下卷을 분리하여, 上卷에서 사물의 이름을 다루고, 下卷에서 그보다 상위의 단계에서 배울 수 있는 행위 중심의 한자들을 배치하고 있어, 사물의 이름을 다룬 명사뿐 아니라 사람의 행위를 다룬 동사까지 아우른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新增類合』은 『訓蒙字會』와 동시대에 편찬되기는 하였으나, 물명 위주의 분류를 특징으로 하는 『訓蒙字會』와 같이, 사물 위주 또는 행위 위주 등으로 책의 성격을 하나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보다 『新增類合』은 학습자의 단계별 학습이 가능하게끔 의도하여, 초학자가 배우기 쉬운 사물 한자에서 시작하여 그보다 상위의 단계에서 배울 수 있는

28) 나도원(2015), 앞의 논문, 217~218쪽.

행위 한자들을 卷을 달리해 분류, 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부여된다.

무엇보다도 당대 조선이 표방한 유교 국가로서 지향을 적극 드러내어 『類合』에 들어 있던 불교 관련 한자어를 없애거나 유교 관련 한자어로 대체하는 등 노력을 보이고, 『類合』에는 있지만 당시 잘 쓰이지 않던 ‘報賽’와 같은 제사 명칭을 제거함으로써 당대 언어 사용과 개념 학습에 충실을 기하였다.

이렇게 불교 관련 한자와 당시 쓰이지 않는 용어를 제거한 점은 변화한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점에서뿐만 아니라, 유배지에서 형성된 미암의 사상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곧 미암은 유배지에서 저술한 『續蒙求分註』에서 주자의 시각을 반영하여 인물 일화를 취하거나 分註에 주자와 그 학자들의 견해를 달며 尊朱子 의식을 드러낸 바 있는데<sup>29)</sup>, 이는 唐나라 李瀚의 『蒙求』와 다른 점일 뿐 아니라, 미암과 같은 시기 蘇齋 盧守愼이 을사사화로 유배를 겪으며 주자학에서 양명학으로 전화한 사실<sup>30)</sup>과 대조되는 점이다. 여기서 『新增類合』이 단지 한자를 익히는 자학서로서뿐만 아니라 미암의 사상을 담아낸 학술서로서도 의의를 지니는 점이 발견된다.

이상에서 한자를 선택하는 데도 학습자의 수준과 당대 조선의 실정을 고려하여 실생활에 쓸 수 있는 한자들을 배치해 교육 효과를 꾀하며, 유배지에서 더욱 공고히 한 미암의 주자학적 세계관을 반영하여 이전의 『類合』과 달리한 점에서 『新增類合』의 당대적 의의가 부여된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奎城君 李混이 자신의 집에 있는 고서 중 『新增類合』을 바치며 改刊해 영구히 전해질 것을 청한 筭子가 『承政院日記』에 실려 있

29) 이연순(2010), 앞의 논문, 439~462쪽.

30) 신항림, 『소계 노수신의 詩에 나타난 思想 연구: 주자학에서 양명학으로의 전변』, 고대 박사학위논문, 2005, 9쪽.

는 데서<sup>31)</sup> 『新增類合』이 후대까지 사대부의 집안에서뿐만 아니라 조정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 왔음을 알 수 있다.

## 2) 현대 한문 교육의 활용 면에서 가치

미암은 손자 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오다가, 1576년 『新增類合』을 완성한 후 이를 손자 光延에게 읽히도록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부인 송덕봉이 광연에게 직접 교육시켜보고는 이 책이 너무 어려운 것을 알고 미암에게 한마디 하였다. 광연이 성품이 聰敏하고 詞氣가 있어 聚句나 『養蒙大訓』, 『小學』 등의 책은 읽을 만하지만, 『新增類合』의 어려운 字를 읽혀보니 비유하건대 견고한 성 아래 고개를 조아린 군사와 같으며, 잠시 늦추어 ‘문장을 이룬 책[成文之書]’을 읽게 하라고 권한 것이다. 미암은 “이 말을 듣고 뉘우쳤다.”<sup>32)</sup>고 기록하였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광연에게 『童蒙須知』를 가르치기 시작하자 광연도 기뻐하였다<sup>33)</sup>는 기사가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新增類合』이 실제 저자인 미암이 손자 교육에 적용하며, 여러 학습서들의 장단점을 취하고 학습자의 현실을 고려하여 완성도 있게 만든 字學書임을 알려준다.

이처럼 『新增類合』은 미암이 실제 손자 교육에도 적용하고, 당대 사용되던 자학서에 대해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장단점을 검토하며 전통적인 자학서들의 장점도 고려하여 만든 점에서, 한자 교육 방법에 시사해주는 바가 많기에, 한자에 대해 어렵게 여기고 학습을 기피하는 학생들이 많은 현대 한문 교육에서도 그 내용과 교육 방법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기대된다.

31) 『承政院日記』, 33책, 1726(영조 2), 1. 9(임인).

32) 柳希春, 『眉巖日記草』 제10책, 1576 병자년, 1.11.

33) 柳希春, 『眉巖日記草』 제10책, 1576 병자년, 1.12.

그러나 실제로 한자 기초를 학습하는 초·중등 교육 단계에서 『新增類合』의 교육적 활용 현황은 찾아보기 힘들고<sup>34)</sup>, 대학생의 초급 한자에 해당하는 교재<sup>35)</sup>에 『類合』과 함께 『新增類合』 수록 한자가 일부 실려 있는 정도로, 그 교육적 활용이 활발한 편은 아니다.

이에 먼저 초등 한자 교육과 관련해서 『新增類合』의 활용 방안을 고려해보면, 현재 한국의 초학 교재로는 『明心寶鑑』·『童蒙先習』·『千字文』·『推句』·『四字小學』 등이 있기는 하나, 기초 한자 교육이 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기에는 내용 면에서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sup>36)</sup> 이에 기초 한자를 먼저 익힐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는데, 이러한 때 『新增類合』에 수록된 한자어들을 포함하여 다룰 방안이 검토된다. 그리고 현대에 한자들을 교육할 때 『新增類合』이 학습자들의 학습 효과를

34) 2016년 말 교육부에서는 2019년부터 5~6학년의 국어를 제외한 비국어교과서에 300자 이내의 한자를 주석 형식으로 표기하되 평가는 하지 않는다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이전 2014년 9월,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 발표 시에, 초등학교 한자 교육 활성화와 학생들의 어휘력 향상을 위해, 3학년부터 국어교과서에 500~600자의 한자를 병기 방식으로 표기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사교육 조장과 학습 부담 가중의 이유로 개정되었으나 이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심계기, 「다시 시작하는 한자 운동」, 『어문생활』, 2017.9.(통권 제238호) 참고. 또한 현행 중등 한문 교과서 가운데 『新增類合』의 내용을 인용해 다루며 자료로 출처를 밝힌 교과서는 없으며 대부분 經史子集에서 인용하고 사전류와 함께 그 출처를 밝히고 있는 형편이다. 단, 동물을 위한 학습서로 몽구류 가운데 倫理書에 해당하는 교재가 자료로 인용되고 있는 경우는 간혹 있었는데, 비상교육(이동재 외 4인, 2013)에서 나온 중학교 한문 교과서에 『四字小學』이, 성림출판사(송영임 외 3인, 2013)에서 나온 중학교 한문 교과서에 『童蒙先習』과 『蒙求』가, 그리고 다락원(송재소, 2014)에서 나온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에 『海東續小學』을 자료 출처로 밝힌 경우가 그것이다. 그리고 字書로는 (주)미래엔(심경호, 2014)에서 나온 고등학교 한문 1 교과서에 사전 출처로 『千字文』(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12, 204쪽)을 제시한 경우가 있으나 내용을 취한 것은 아니어서 결국 字書의 내용을 자료로 다뤄 인용하고 있는 현행 중등 교과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35) 윤경희, 『한문의 첫걸음』, 새문사, 2010.

36) 권애영, 「중국 계몽교재 《弟子規》 고찰과 그 활용 사례」, 『한국한자한문교육』 40,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6, 175쪽.

피하여 취한 방식대로, 한자들의 배열 시 실제 생활에서 쓰는 쉬운 한자들을 먼저 항목 분류해 제시한다든가, 압운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 중등학교 한문과 교육과정과 관련해 16세기 미암 유희춘이 저술한 『新增類合』의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해볼 수 있다. 최근 2015년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가운데 ‘문화’ 영역 중 ‘언어생활과 한자 문화’에서 새롭게 학습 성취 기준으로 제시된 ‘한자 어휘의 이해와 활용’이 한문 지식 영역의 ‘어휘’ 중 ‘어휘의 유형’과 ‘성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하는 학습 내용을 학습 요소 중심으로 수정, 보완한 점<sup>37)</sup>에서도, ‘성어’의 중요성이 빠지지 않고 강조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新增類合』에는 낱글자가 아닌 두 글자가 하나의 단어를 형성하여 외우기 쉽도록 한자어를 더 붙인 경우가 있어, 곧 『類合』에는 蝶, 蠖, 蛛, 蝨 등 한자 하나씩만을 제시하고 뜻을 풀이하였지만, 『新增類合』에서는 이들 한자어에 대해 胡蝶, 蚘蠖, 蜘蛛, 蟻蝨 등으로, 비슷한 뜻이지만 다른 한자를 붙여 놓아 성어를 이루었기에, 암기하기 쉽고 쓰이기 편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 외에도 한류의 열풍을 타고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에 찾아오는 많은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에서 많이 쓰이는 한자어들을 학습하게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최근 홍콩, 마카오, 대만 등지뿐 아니라 중국 현지에서 ‘國學熱’ 혹은 ‘讀經熱(경전읽기 붐)’이 일고 있는데, 그 중 자학 교재로는 『弟子規』·『三字經』·『千字文』이 공통되게 들어 있음을 볼 수 있다.<sup>38)</sup> 『弟子規』와 『三字經』은 한국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지만, 활용의 가능성이 있고, 『千字文』은 한국에서

37) 교육과학기술부, 『한문과 교육과정』, 2011. 참조.

38) 권애영(2016), 앞의 논문, 2016, 176쪽.

익숙하게 사용되었지만, 이와 함께 한국의 한자어를 익히는 데 『新增類合』에 수록된 한자어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고려된다. 또한 현재 한중일 공용 한자 808자가 마련되어 있으나 거기에 한국에서 많이 쓰이는 한자어에 대해 좀 더 배려하는 방안을 마련할 때 이 『新增類合』에 수록된 한자어들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16세기 중반 字學書로서 『新增類合』이 갖는 의의와 후대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고, 아울러 현대 한문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실제 교육에 반영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4. 결론

본고에서는 『新增類合』이 『類合』과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 기존에 언급된 사항들의 실재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그로 인해 당시 어떠한 문제가 제기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新增類合』에서 어떻게 해결하였는지에 대해 상세히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본론에서 字學書로서 『新增類合』을 『類合』과 비교하여 그 특징을 추출한바, 먼저 체계와 형식 면에서 학습 효과를 꾀한 점으로, 上下卷을 분리하고 項目을 제시하여 體系의인 分類 방식을 통해 학습자의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게 한 점과, 1行에 4字씩 배열하고 押韻 方式을 活用하여 暗記 효과를 극대화한 점을 찾을 수 있다. 다음 한자 선택 면에서는 당대 朝鮮의 實情과 실생활을 반영한 漢字를 선택한 점으로, 佛敎 관련 漢字와 쓰이지 않는 用語를 제거하고 실생활에 쓰이는 漢字를 주되게 선택하여 학습 수준을 고려해 재배치한 노력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이로써 字學書로서 『新增類合』이 『類合』뿐 아니라 16세기 중반 당대

『千字文』, 『訓蒙字會』 등의 字學書 가운데서 갖는 的의를 밝혀 위상을 정립하며, 현대 한문 교육에도 시사해주는 바를 제시할 수 있었다. 특히 현대 교육적 활용 면에서 갖는 的의가 크리라 기대된다. 이번엔 본고에서 『新增類合』에 들어 있는 ‘성어’들을 찾아 현행 교육과정에서 성취기준으로 제시한 학습 내용을 개발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그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가치를 밝힌 점에서 한 的의가 있었다.

다만 본론에서는 『新增類合』에서 『類合』과 달리한 점을 찾아 그 특징을 밝히는 데 주력하느라, 『新增類合』이 『類合』에서 취한 점을 그대로 따른 경우도 있는데, 이는 『類合』의 장점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이러한 요소가 부각되지 않은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新增類合』의 맨 마지막 항목인 下卷의 ‘事物’ 항목에는 한자어의 관계에 대해 알려주는 한자어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類合』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이처럼 『新增類合』이 『類合』의 장점을 그대로 취한 점도 함께 살펴 학습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곧 『新增類合』은 한자어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반의어, 유의어들을 제시하고 그렇게 이루어진 성어들을 대구가 되도록 배치함으로써, ‘성어의 의미’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고 활용할 수 있는 한문 고전 텍스트로, 그 해당 예를 살펴 학습 내용의 개발 분야를 제안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柳希春, 『眉巖日記草』 1권, 조선총독부 한국사편수회, 1936, 1~396쪽.  
柳希春, 『眉巖日記草』 2권, 조선총독부 한국사편수회, 1936, 1~464쪽.  
柳希春, 『眉巖日記草』 3권, 조선총독부 한국사편수회, 1936, 1~498쪽.  
柳希春, 『眉巖日記草』 4권, 조선총독부 한국사편수회, 1936, 1~510쪽.  
柳希春, 『眉巖日記草』 5권, 조선총독부 한국사편수회, 1936, 1~350쪽.  
柳希春, 『新增類合』, 단국대학교 東洋學研究所, 1972, 1~329쪽.  
李建廷(參編人員: 金美玲, 凌雲, 宋民, 趙傳海), 『蒙求字書整理與研究』, 『《新增類合》整理與研究』, 上海人民出版社, 2012, 1~169쪽.  
刊寫者 未詳, 『類合』(木板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刊寫年 未詳, 1~45쪽.  
任聖周, 『鹿門集』, 景文社, 1976, 1~568쪽.  
『高麗史』, 『高麗史節要』, 『世宗實錄』, 『中宗實錄』, 『承政院日記』 DB.
- 김은정 ; 강순재, 「조선시대 아동용 字學書를 통해 본 복식명칭 연구」, 『服飾』 85, 한국복식학회, 2004, 97~111쪽.
- 김훈식, 「朝鮮前期 蒙求書의 편찬」, 『仁濟論叢』 17(1), 2002, 13~26쪽.
- 나도원, 「16세기와 21세기 공용한자의 인지언어학적 의미범주 고찰 : 『訓蒙字會』와 3500한자를 중심으로」, 『中國學』 53, 대한중국학회, 2015, 207~222쪽.
- 閔忠煥, 「『訓蒙字會』 『新增類合』 『千字文』의 比較 考察」, 仁荷大學校 석사학위논문, 1981, 1~67쪽.
- 박형익, 「『類合』의 표제자 선정과 배열」, 『이중언어학』 23, 이중언어학회, 2003, 91~112쪽.
- 방종현·남광우, 「(方鍾鉉 先生 所藏) 萬曆 新增類合(寫本)」, 『국어국문학』 21, 국어국문학회, 1959, 177~219쪽.
- 배현숙, 「新增類合 판본고」, 『민족문화연구』 3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3, 283~330쪽.
- 史 游, 『急就章』, 顏師古 주석·양효성 옮김, 박이정, 2008, 1~392쪽.
- 申景澈, 「新增類合의 字釋 研究-羅孫本과 高大本을 中心으로」, 『韓國言語文學』 16, 1978, 137~158쪽.
- 신항립, 『소제 노수신의 詩에 나타난 思想 연구: 주자학에서 양명학으로의 전변』,



- 고대 박사학위논문, 2005, 1~208쪽.
- 신중진, 『『研經齋全集』에 실린 稻穀物名에 대한 어휘사적 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52, 한양대학교출판부, 2012, 83~118쪽.
- 신중진, 『곡물명 수록 어휘 자료집의 계보와 그 어휘 목록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54, 한양대학교출판부, 2013, 67~95쪽.
- 심경호, 『연세대 소장 유서 및 한자어휘집의 가치』, 『동방학지』 146,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9, 1~88쪽.
- 심경호, 『續蒙求分註의 압문 체제: 續撰과 創新』, 『한국한문학회』 47, 한국한문학회, 2011, 415~464쪽.
- 안병희, 『국어사 자료 연구』, 문학과지성사, 1992, 1~579쪽.
- 오원규, 『千字文·訓蒙字會·新增類合 字釋 연구』, 공주대 석사학위논문, 2001, 1~100쪽.
- 위 진, 『新增類合의 새김 고찰』,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1~92쪽.
- 윤경희, 『한문의 첫걸음』, 새문사, 2010, 1~151쪽.
- 이경하, 『『內訓』과 ‘小學·列女·女教·明鑑’의 관계 재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8, 237~271쪽.
- 이석구, 『類合에 대한 國語學的 研究』,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1~185쪽.
- 이연순, 『미암 유희춘의 속몽구 연구』, 『어문연구』 147,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1, 439~462쪽.
- 이은실, 『新增類合의 漢字音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1~141쪽.
- 장요한, 『계명대 소장본 『新增類合』의 문헌학적 의의』, 『대동한문학』 45, 대동한문학회, 2015, 175~198쪽.
- 정호훈, 『續蒙求分註』, 『고서해제』 X,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평민사, 2008, 26~33쪽.
- 河野六郎 著, 李珍昊 譯註, 『한국 한자음의 연구』, 역락, 2010, 1~539쪽.

ABSTRACT

A Study on Significance and value of 『Sinjeung-Yuhap(新增類合)』 of  
Miam(眉巖) Yu Heechun(柳希春)  
— through comparison with 『Yuhap(類合)』

Lee, Yeon-s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Sinjeung-Yuhap(新增類合)』 by comparing with 『Yuhap(類合)』. What I discovered as a feature of 『Sinjeung-Yuhap(新增類合)』 is as follows. First, in formal aspects, 『Sinjeung-Yuhap(新增類合)』 learned to study according to the level of the learner by dividing the numbers and presenting items. And 『Sinjeung-Yuhap(新增類合)』 made it easy to learn using a rhyming word. Second, in terms of selecting Chinese characters, 『Sinjeung-Yuhap(新增類合)』 removed Chinese characters from the Buddhist scriptures and eliminated the words that were not used in the mid 16C Joseon Dynasty. And 『Sinjeung-Yuhap(新增類合)』s elected the words in real life and redeployed them into consideration. As a result, in 『Sinjeung-Yuhap(新增類合)』, I was able to discern the significance of the Joseon Dynasty in the middle of the 16th century in terms of presenting a Neo-Confucianism worldview.

**Key Words** Miam(眉巖), Yu Heechun(柳希春), 『Yuhap(類合)』, 『Sinjeung-Yuhap(新增類合)』, Chosun Dynasty, in the middle of the 16th century, Neo-Confucianism, Buddhism

논문투고일 : 2018.01.13  
심사완료일 : 2018.02.05  
게재확정일 : 2018.02.12